

1.글로벌 채권

- * <뉴욕 채권> 국채가격, 유럽중앙은행이 자산매입 기간을 연장했지만 규모를 축소한 것에 의미를 뒤, 사실상 테이퍼링이 시작됐다는 우려로 하락
- * 국채가격, 유럽장에서 ECB의 통화정책 결정 발표 전부터 내리다가 뉴욕장 들어 ECB 결정이 발표되자 수직으로 급락
 - 獨 국채 10년물 수익률 한때 0.45% 까지 상승했다가 오후 들어 0.375%로 하락
- *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의 기자회견이 시작되면서 통화완화 의지 부분이 강조되자, 국채가 낙폭이 줄어들음
 - 채권매입프로그램의 조건이 1월부터 바뀌기 시작한다며 매입대상 국공채의 최소 잔여 만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면서 매입대상 채권의 만기를 더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
 - '시중은행들이 ECB에 여유 자금을 맡길 때 적용받는 -0.4%의 예금금리보다 낮은 유로존 국채도 매수할 것'... 다만 이는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절대적인 필요는 아니라고 덧붙임
- * 국채가, 오후 들어 옆으로 가는 장세를 지속
- * 美 재무부, 다름주 올해 마지막 560억달러의 장기국채를 입찰
 - 12일 3년 만기 \$240억 & 10년 만기 \$200억이 같이 공급 / 13일은 30년 만기 \$120억 입찰

[미국]

2y	1.11%	(+1.4bp)
5y	1.84%	(+5.0bp)
10y	2.41%	(+6.9bp)
30y	3.11%	(+8.3bp)

[기타 10Y물]

영국	1.38%	(+2.2bp)
독일	0.38%	(+3.7bp)
프랑스	0.80%	(+4.9bp)
이탈리아	1.99%	(+10.9bp)
스페인	1.50%	(+7.9bp)
그리스	6.53%	(-2.0bp)

2.글로벌 증시

- * <뉴욕 마감> ECB 양적완화 연장 &트럼프 랠리에 3대 지수 사상 최고치 마감
- * 보험권 혼조세로 출발한 지수는 트럼프 정책 기대감 지속 & ECB 양적완화 연장 소식에 상승 ... 미 고용지표 호조도 증시 상승에 한 몫
- * ECB, 기준금리인 '레피(Refi)' 금리를 제로로 동결하고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월 600억유로 규모의 자산

매입

- 기존 800억유로 규모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은 내년 3월 마무리될 예정... 내년 4월부터 매입 자산 규모는 200억유로 줄지만, 기한이 9개월 연장되는 셈

- 다만 연장된 자산매입 규모가 기존보다 줄어 테이퍼링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진단도 제기

* 마리오 Дра기 ECB 총재, 기자회견에서 물가 등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으면 양적 완화 규모와 기한이 추가로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

- 이번 결정이 '테이퍼'로 가기 위한 조치는 아니며 QE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설명

*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다시 감소하며 고용지표 악화에 대한 우려 잠재움

- 실업수당 청구건수, 전주보다 1만건 감소한 25만8000건 기록... 전망치인 25만5000건보단 많았지만 고용지표 악화를 걱정해야 하는 수준은 아니었음

* <유럽 마감> ECB의 양적완화(QE) 연장에 힘입어 11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상승

* <상하이 마감> 中 외환보유액이 약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어 자본유출 가속화 및 위안화 절하에 대한 우려가 강조되면서 하락 마감

- 11월 외환보유액 2011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인 3조500억달러로 집계...중국 통화당국이 자본유출로 하락하는 위안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달러를 팔아 위안화를 사들인 영향으로 풀이

* <도쿄 마감> 뉴욕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중국 무역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투자 심리 자극하며 상승...닛케이 연고점 경신

DOW30	19614.81	(+0.33%)
NASDAQ	5417.36	(+0.44%)
S&P500	2246.19	(+0.22%)
NIKKEI225	18765.47	(+1.45%)
SHANGHAI	3215.37	(-0.21%)
FTSE100	6931.55	(+0.42%)
DAX30	11179.42	(+1.75%)
CAC40	4735.48	(+0.87%)

3.글로벌 환시

* 유로화, ECB가 양적완화(QE)를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는 발언에 방점을 찍고 달러화와 엔화에 급락

- 유로/달러 환율은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한다는 소식이 먼저 전해지면서 1.0875달러까지 상승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급락세로 돌아섬

달러 인덱스는 전날보다 0.96% 상승한 101.18을 기록

유로/달러 1.0615 (-0.0147)

유로/엔 121.00 (-1.44)

달러/엔 113.98 (+0.24)
 달러/위안 6.8731 (-0.0077)
 파운드/달러 1.2581 (-0.0005)
 NDF 1163.00 / 1163.50원...4.65원 상승

4.글로벌 상품

* <국제 유가> 오는 10일 석유수출국기구(OPEC)와 비OPEC 산유국 회동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날 낙폭을 대부분 만회

* <국제 금값> ECB의 통화정책 발표 후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데 따라 하락

WTI 50.84 (+2.2%)
 COMEX금 1172.40 (-0.4%)

5. 전일 국내 지표

코스피 2031.07 (+1.97%)
 코스닥 584.62 (+1.05%)
 원/달러 1158.50 (-9.40)
 KTB 109.42 (+0.12)
 LKTB 125.32 (+0.40)

6. 전일 국내 주요 금리

* 국고채 금리, 하락 마감. ECB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외인의 국채선물 매수가 채권시장 강세를 주도. 주식/채권/외환시장 트리플강세가 나타남.

CD(91d) 1.5400% (0.00bp)

[국고채]

1y 1.5750% (-1.40bp)
 3y 1.7080% (-2.30bp)
 5y 1.8870% (-3.00bp)
 10y 2.1570% (-3.50bp)
 20y 2.1700% (-3.00bp)
 30y 2.1640% (-2.60bp)
 50y 2.1590% (-2.60bp)

[통안채]

1y 1.5650% (-2.00bp)
 2y 1.6710% (-2.90bp)

7. 본드 스왑 스프레드

1Y -7.75bp (+0.75bp)
 2Y -15.10bp (+0.90bp)
 3Y -13.55bp (+0.80bp)
 5Y -21.70bp (+1.50bp)
 10Y -33.45bp (+1.50bp)

8. IRS/CRS 동향

* IRS, 미 채권금리 하락 영향 등으로 하락 마감. 장기물 위주로 거래가 있었음.

* CRS, 부채스왑의 영향으로 금리 상승세 이어가. 커브 스티프닝.

*IRS 금리

1Y 1.4875% (-1.25bp)
 2Y 1.5200% (-2.00bp)
 3Y 1.5725% (-1.50bp)
 5Y 1.6700% (-1.50bp)
 7Y 1.7300% (-1.25bp)
 10Y 1.8225% (-2.00bp)

1*2Y 3.25 (-0.75bp)
 2*3Y 5.25 (+0.50bp)
 2*5Y 15.00 (+0.50bp)
 3*5Y 9.75 (-0.00bp)
 5*7Y 6.00 (+0.25bp)
 5*10Y 15.25 (-0.50bp)

*CRS 금리

1Y 1.1100% (+2.00bp)
 2Y 1.2250% (+4.50bp)
 3Y 1.3100% (+4.50bp)
 5Y 1.3750% (+5.50bp)
 7Y 1.3800% (+5.00bp)
 10Y 1.3700% (+5.00bp)

9. 주요뉴스

[해외]

- * 이탈리아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(BMPS)의 민간 자본확충 시한을 늦춰줄 것을 ECB에 요청 <FT>
 - 이탈리아 정부가 최대 주주인 BMPS는 도산을 피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50억 유로의 유상증자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나 개헌 국민투표 부결과 마테오 렌치 총리 사퇴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로 투자 유치가 어려워진 상황
 - BMPS 이사회는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유상증자가 실시되기 어렵다며 내년 1월 중순까지 시간을 달라는 입장을 ECB에 전함
- * 중국 11월 수출, 철광석과 석탄 등 원자재 수요 증가에 힘입어 8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
 - 11월 달러 기준 수출 1968억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0.1% 증가...예상치인 -0.5% 크게 웃도는 수치
 - 中 상품에 대한 전 세계 수요가 견조하고 위안화 가치가 하락한 것이 수출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꼽힘...
- 11월 중국의 철광석 수입 규모는 역대 3위 수준이고 원유 수입도 반등
 - 11월 달러 기준 수입은 6.7% 증가하며 예상치(-1.9%)와 전월치(-1.4%)를 크게 상회
- * 일본 3분기 GDP 수정치, 전기대비 +0.3%... 속보치 0.5%에서 0.2% 포인트 하향된 결과
 - 3분기 연속 전기대비 증가하였으나 분기마다 0.2%포인트씩 연속해서 낮아지는 모습
 - 연율로 환산한 3분기 성장률은 속보치 2.2%보다 0.9%포인트 낮은 1.3%로 수정

[국내]

- * '문제는 금리아'...금통위원이 바라본 플래트닝 부작용
 - 함준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, 채권시장 자금흐름과 장기이자율 금리가 자본유출입 경로 등을 통해 금융안정 리스크를 높이고 통화정책의 자율성 낮춰
 - 낮은 장기금리가 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을 약화시키고 가계부채 증가시켜
- * 금투협회장 "목적형 ISA 도입...국내 운용사와 외국계 규제 좁힌다"
- * 함준호 금통위원 "선진국 QE변화, 금융안정위험 ↑...통화정책 어려워"
- * 금융위 "국경 간 금융거래 활성화로 외국계 유치"
- * 내년 정책모기지 44조 공급...실수요자 지원 강화
- * 기우로 끝난 은행채 대란...12월도 '무난'
 - 지난해 11월 시중은행들의 대규모 은행채 발행에 따른 자금경색이 올해는 재현되지 않음
 - 학습효과로 시중은행들이 사전에 은행채를 발행해왔고, 한국은행 등에서 유동성을 공급해줘 발행에 차질이 없었기 때문

****금일 예정 지표****

중국-11월 CPI(YoY) (예상:2.2%, 이전:2.1%) / CPI(MoM) (예상:0.1%, 이전:-0.1%)

-11월 PPI(YoY) (예상:2.2%, 이전:1.2%)

독일-10월 수출(MoM) (예상:1.0%, 이전:-0.7%) / 10월 수입(MoM) (예상:0.9%, 이전:-0.5%)

-10월 무역수지 (예상:21.5B, 이전:21.3B)

영국-10월 무역수지 (예상:-11.80B, 이전:-12.70B)
